

강릉 갈바리 호스피스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5-2
TEL: 033) 644-4992, 4993
E-mail: dananai@hanmail.net



1. 기관 및 호스피스 설립배경

마리아의 작은자매회 한국관구는 갈바리산상십자가 아래 계셨던 성모님의의 모성애로, 내일이면 늦을 오늘 죽음에 임박한 병들어 고통중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전인적 즉 영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간호를 통한 총체적인 돌봄을 목적으로 갈바리의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설립하였다.

2. 갈바리호스피스 연혁

1963. 11 한국 천주교회 춘천교구장 구 토마 주교님의 초청으로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호주관구 소속 수녀 2명이 한국에

도착하여 강릉 갈바리의원 건축 시작

1964. 9 호주수녀 2명이 한국 선교에 동참하여 강릉에 합류

1964. 9 갈바리의원 건물이 완공되어 수녀원 축성 및 외국신부가 원목신부로 상주

하게됨

1965. 3 호주의 자원봉사 의사 1명, 호주수녀 4명(간호사, 방사선기사, 검사기사, 약사) 직원 22명으로 갈바리의원 개원 당시 강릉에는 병원이 없었던 시기여서 모든 질병의 환자들 특히 방랑 및 무연고자 환자들을 인근 여관등을 이용하여 환자 간호와 숙식을 제공하는 외래진료와 호스피스 돌봄 실시
1978. 8 의원이 안정됨에 따라 ‘요셉의 집’ 개설 임종자를 위한 방 2개를 마련, 무연고 환자나 가정에서 임종할 수 없는 여건의 어려운 환자들의 간호 및 임종을 지키면서 적극적인 호스피스 활동 실시
1981. 1 임종자들을 위한 말기 간호와 무연고 자들을 위한 단기간 입원 치료를 위해 의원 2층에 2용 병실 7개, 14병상을 마련하여 24시간 지속적인 호스피스 입원실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가정 방문 간호-방문간호사, 방문수녀, 운전

- 기사, 자원봉사자와 함께 방문 실시
 1990. 11 가정방문 호스피스에 주력하여 강릉 시내 및 명주군을 거점으로 방문 호스피스를 활성화 시키면서 무료환자들의 장기 입원화 및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호스피스 입원실 정리
 1995. 6 강릉지역에 호스피스교육 실시, 갈바리 호스피스 운영위원회가 실시되었고, 의원 2층 병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후원자, 자원봉사자, 원목자, 의료진의 팀 활동
 1999. ~ 입원실 운영, 가정방문, 외료진료, 타 병원 원목활동과 함께 임종자들의 위한 기도회, 전화상담 등 주관

3. 규모 및 인력현황

입원병상 : 14개 (2인실: 7)

전문인력 : 의사 1명,
 간호사 8명(책임수녀 1명,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청소, 주방, 세탁직원 4명
 자원봉사자 80명

4. 호스피스 이용 조건

● 입원 대상자

- 의사진단 6개월 이내로 예견된 말기환자 (말기 암 환자로 임종 준비를 해야할 분)
- 가족이 있어도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말기 암 환자
- 통증완화 및 증상관리를 요하는 환자
- 의식이 분명하여 의사 소통이 원만한 말기환자
- 특히 가족이 없는 분들을 우선으로 한다.

● 가정방문 호스피스

가정방문 간호사가 강릉지역 불우한 임종환자들

을 위하여 곳곳으로 방문한다. 필요시에는 의사가 방문을 하며, 방문가정에서 돌봄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갈바리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한다.

5. 활동 및 프로그램

갈바리 호스피스의 가장 큰 장점은 호스피스 정신을 철학으로 하는 수녀회의 기관으로, 몸에 벤 호스피스 정신으로 환자에게 헌신적인 수녀들과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환자들을 대함으로 환자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다.

-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간 배려 – 실내 정원, 목욕실, 기도실, 가족 휴게실, 탕비실 등의 공간이 집과 같은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한다.
- 전담 의사와 간호사의 전인 간호
- 호스피스 팀의 활성화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적절한 도움과 중재 실시
- 사목을 위한 수도자 성직자 필요시 수시 방문
-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 비디오 상영, 산책, 외출 동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자 : 기도, 전신목욕, 이 미용, 상담, 마사지 등 환자와 가족의 필요시 도움
- 임종준비에 관한 상담 실시
- 임종 후 연도 및 장례예식에 참석
- 유가족 관리 – 사별가족 가정 방문 및 면담, 전화
- 홍보: 갈바리 호스피스 소식지 발간 (년 4회)
- 호스피스교육 – 대학, 자활후원기관, 여성회관,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실시

6. 운영 및 지원 상황

- 입원 의료수익으로 전체 운영비의 30-40% 충당
- 외래 의료수익 및 수도회의 보조금
- 기타 개인 및 단체 후원금

서울대교구 7지구 가정호스피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8동 856

천주교 노원교회 가정호스피스실

TEL : 02)3392-1965 Fax : 02)933-9986

E-mail : kimok1004@yahoo.co.kr



1. 지구의 가정호스피스 설립배경

서울대교구 7지구는 최근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악성신생물의 증가에 따라 본당신자들 중 가정에서 의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본당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핵 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가족들의 수발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 간호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착안하여 2000년 2월 당시 본당 주임신부님이셨던 안경렬 몬시뇰께서 본당사목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고 경험이 많은 간호수녀님 한 분을 본당 가정방문간호 전담요원으로 임명하여 지구소속 교우들의 방문간호를 시작하였다.

2000년 6월에 방문간호사업의 구역이 7지구 9개 본당으로 확대되었으며, 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말기환자들의 가정호스피스 활동이 본당의 의사, 간호사, 원목자, 자자원봉사자의 팀 접근으로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해 2000년 10월과 2001년 5월 2회에 걸쳐 호스피스 봉사자를 교육하여 2001년 11월부터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였다.

2. 목적 및 철학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나 임종이 예견되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돌봄으로써 여생동안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별 후에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3. 활동 인원

-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수녀 1명(상근)
-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1명(비상근)
- 방문간호사 9명(비상근)
- 의사 2명(비상근/가정의학과, 내과)
- 성직자 2명(비상근, 본당신부님)
- 자원봉사자 28명(주1회)

4. 주요 사업 내용

1) 교육

-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 년 1회 (4일간 32시간)
- 자원봉사자 재교육 : 자체 년 2회(1일)
 강남성모병원에서 매월 1회 필요시 수시로 실시
- 피정 및 성지순례 : 봉사자들의 영성생활 함양을 위해 년 1회씩 실시하여 30~40명 정도 참여

2) 환자 관리

- 가정방문 : 각 본당 봉성체 대상자와 지역 내 비신자 환자 중 말기암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그 외 가족의 돌봄

- 병원방문 : 지역내의 원자력병원, 백병원, 을지병원의 재원환자 중 대상을 돌보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 관리
- 사별가족모임 : 사별 후 1회의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위령성월에 1회 연미사와 사별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 하며, 부활절에 부활계란 나누기와 성탄절에 카드 보내기
- 야외행사 : 호스피스 대상자 및 거동불편 환자를 위해 년 1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위안의 날 실시

3) 영적 사목 활동

- 병자성사, 대세, 봉성체 – 백병원 월 2회, 원자력병원 매주 월 4회 병원에 입원 중인 호스피스환자를 방문하여 영적 돌봄을 실시한다.

4) 호스피스 팀 모임 및 봉사자 월례회의

- 자원봉사자 월례회 – 매주 첫째 금요일 오후 2시에 실시
- 호스피스팀 위원회 – 월 1회 실시